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가곡 '옛 동산에 올라'와 고향 서정



김 장 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옛 동산에 올라(이은상 작사, 흥난파 작곡)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 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라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버혀지고 없구로
지평이 도져 짙고 산기슭 달아서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태 저 무너지고
그 흠에 새 소나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로

*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관광부공보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교육문화심의관, 종무실 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자원연수부장을 지낸 바 있다.

1968년 제가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일 때 우리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분은 박정에 선생님이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음악시간에 여러 좋은 가곡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곡은 흥난파 작곡의 '옛동산에 올라'와 박태준 작곡의 '사우'입니다.

특히 경남 마산 출신의 이은상 시인이 작사하고, 일제시대 한국의 대표적 작곡가인 흥난파 선생님이 작곡한 '옛 동산에 올라'를 배우고 나서 박선생님의 반주에 맞추어 반 친구들과 합창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친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울보'라고 흥분까 두렵기도 하고, 이유 없이 밀려드는 감정의 폭발침 끝에 흐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감추려고 허둥대며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14살의 소년인 내가 이 시가 그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데다가, 가정적으로 좀 빈궁하기는 하나 양친과 형제간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안타까이 여기는 비교적 안온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생도, 자연도 변한다는 천리(天理)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이은상 선생님의 시에 담은 흥난파 선생님의 구슬픈 선율이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한 청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래를 배운 후 저는 금산 밑에 나무하러 가든, 금전부락 뒷산과 대량마을 뒷산의 중간에 위치한 서당골에 소 먹이러 가든 계기가 주어지는 데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특히 어느 겨울 방학 동안에 신보탄에 사는 고 최석모군과 같이 금산에 나무하러 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 전에 배웠던 이 노래를 돌이켜 감정을 잡아 소리 높여 부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군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랜 세월이 흘렀고, 마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시절이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학업과 직장을 이유로 고향을 떠난 지 오래 되었고, 허무하게도 친구 최석모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간지 오래 되었습니다(다시 한번 저 멀리 가신 친구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그런데 불귀의 객이 된 최군과 달리 저는 여전히 내가 태어나고, 정다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고향에 적어도 일년에 두 차례, 즉 설과 추석에는 거의 빠짐없이 귀향을 합니다.

고향을 찾을 때 마다 가는 필수코스는 망운산의 망운암과 금산 보리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큰 형님 산소이고, 시간이 나면 추억을 더듬으며 옛날 다니던 곳에 마음 내키는 대로 가보곤 합니다.

지난해 설날에도 남해에 도착 하자마자 망운암과 보리암에 들려 아는 스님들과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누대에 이어온 어지러운 속세의 인연을 마치 칼로 대나무를 쪼개듯 단칼에 모질게 끊고 탈세간을 한 스님들이지만 승과 속의 구분을 하는 것이 옛날처럼 쉽지 않는 요즘의 시절인연이 그런

지 지금 마스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우리들의 주요 토론과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 보리암을 나서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지스님으로부터 우산을 빌려 쓰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산 아래를 보니 구름에 가려 제대로 상주마을도 볼 수 없었고,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가을 소풍을 계기로 사춘기의 풋과일 같은 설익은 마음으로 지낸 3년의 아쉬운 추억을 날려 보내기라도 하듯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하룻밤을 지냈던 부산여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구름처럼 진상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들은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지 구름 밖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편견 혹은 선입견 등으로 사물을 바로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상사에서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름밤 저녁 저는 상주 유자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영 잠이 오지 않아 조카를 데리고 금전 선창가로 나갔습니다. 그 때가 마침 만조기인지 백사장이 있던 곳은 바닷물로 가득 차 있었고,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동동 떠다녔습니다.

어릴 때 백사장으로 밀려온 멸치 떼를 손으로 퍼 담아 바지계에 지고 집으로 가서 신물이 나도록 먹고, 다 먹지 못한 멸치는 거름과 함께 썩혀서 눈에 뿌렸던 기억이 얼른 떠올랐습니다.

여름에는 집이 너무 더워서 금전 백사장에 명석과 함께 이부자리를 가져가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잔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름답던 백사장이 잘못된 지역계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2월의 바닷바람은 차가운데 환하게 불 밝힌 선창에 매인 낡은 배들은 파도치는 대로 흔들거리며 오래 만에 귀향한 사람의 낭만적 상상을 어지럽게 자극했습니다. 보이는 곳곳마다 옛날 나의 삶의 궤적이 어려 있는 곳이라 여러 가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한 여름날 이 선창에서 우리들은 수영을 하였고,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 낙도 교사로 부임함에 따라 짐을 배에다 싣고 떠나는 이별의 행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선생님과 그분의 따님이자 우리들의 같은 반 친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교사리 같은 작은 손을 흔들며 눈물로 전송하고 난후 친구들과 학교로 돌아오면서 가수 이상열의 노래 '난이야'를 목청껏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금전 선창을 돌아본 후 상주 백사장을 거쳐 상주중학교를 지나갔습니다.

상주의 그 드넓은 백사장을 거닐면서 어릴 적 한 여름밤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도덕적인 규율과 외부적 규제로 억압감을 느끼는 청소년 혹은 약간 그 윗세대가 집을 떠나면서 느끼는 해방감을 마음껏 분출하는 기제의 하나로 연출되는 자극적인 노래와 춤이 이제 이성에 눈 뜰 나이에 도달한 한

청소년의 감성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온 나의 청춘에 대해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모래를 퍼다 새로 신축하는 상주중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던 일이며, 1970년 5월 어느 날 학교 낙성식을 기념하여 임태영 선생님 주도 하에 그 전년 가을부터 준비했던 연극공연을 끝내고 약간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걸으니 이내 상주 선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여수와 삼천포를 오고 가는 여객선 조도호가 유행가를 크게 틀며 손님들을 내려놓고, 또 태워가던 이별의 장소이자 재회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 여객선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들으며 노래를 익히고, 그때 익힌 노래를 지금도 끈질기게 부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섬 쪽을 바라보니 검은 덩어리로 보이는 저 바다의 어둠과 해수욕장 주변의 환한 가로등 불빛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며 여러 가지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아! 가을걷이가 끝난 늦은 가을날 저 상주바다에는 환하게 불을 밝힌 어선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정박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웅기를 실은 배들이 웅기와 다른 물건과의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 느릿느릿 이 동네를 향해 들어오던 곳이지요. 저도 어머니의 명을 받아 고구마를 바지계에 얼마간 지고 가서 작은 웅기를 바꾸어 온 기억이 났습니다.

나이 50을 넘으니 아침에 잠이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이 드는 것이 요즘 저의 형편입니다. 설날 아침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돌려 눕는데 이번 귀향에 동행한 큰딸이 그러지 말고 밖으로 운동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지라 벌떡 몸을 일으켜 어제 저녁에 갔었던 금전 선창가로 다시 갔습니다.

여름의 번잡함을 떨쳐버린 겨울바다는 약간 쓸쓸하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조용히 사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가끔 나무하러 다니거나 소 먹이러 다니던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금전 선창 위에 난 포장길을 따라 대량마을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습니다. 금방 국립수산진흥원 시험장을 거쳐 서당골 아래편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주변은 상주를 찾는 해수욕꾼들을 위해 깨끗이 정비해 놓아 울창한 송림, 기암괴석을 때리는 파도 등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이름 모를 바닷새가 지어내는 노래의 향연이 펼쳐지는 광경이 참 볼만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곳이 도연명이 말하는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은연중 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 온 김에 서당골도 가보자는 생각이 들어 길도 없는 산골짜기를 슬

슬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늘 나무로 땀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그야말로 민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으로 나무가 너무 짙은데다 가시가 손등을 찌르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아 길도 없어진지 오래라 한발 한발 나가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군데군데 쉬면서 산 정상에 오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곳에서 봉호, 준호, 옥두 등 금전친구들과 나무하고 풀비며 소먹이면서 지냈던 흔적들을 찾기는 힘들지만 이곳쯤은 내가 겨울방학에 썩은 나무를 도끼로 깨며 가수 심연옥이 부른 '한강'을 불렀던 곳이고, 저곳은 저 올망졸망한 남해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수많은 배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이곳을 떠나나 하며 답답한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었던 곳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금전 뒷산에 서서 참으로 아름다운 상주를 한눈에 조망하면서 서당골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옛날 이곳에는 약간 너른 잔디마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름 한낮을 뜨겁게 달구었던 해가 서산에 지려할 때 소먹이러 온 우리들은 소위 '진도리'라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지금 그 잔디마당에는 나무들이 뻗뻗하게 서 있었고, 우리들의 그 신나는 노래와 웃음소리는 한때의 전설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쉬운 맘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님, 큰 형님 산소와 금전 저수지 근처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성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동네 분들이 반가이 저를 맞이하면서 오래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양친과 지금 남해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형제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로 귀경하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친구들과 모임에 가지는 못하고, 몇몇 친인척 어른과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간단히 예방하고 상주를 떠났습니다.

신보탄에서 금산입구에 이르는 길에는 동백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동백꽃들은 이미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인 유치환 선생님이 '청춘의 피꽃'이라고 불렀던 저 꽃이 저렇게 가듯이 한때 팔팔하던 우리의 청춘시절도 저렇게 갔었구나 하는 비감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설날 귀향을 계기로 저는 추억이 어린 옛 동산을 여러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산천이 옛날과 같다는 옛 시인의 말이 맞지 않다는 이은상선생님의 지적처럼 상주의 곳곳도 우리가 떠난 이후 엄청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에 방문을 끝내고 돌아왔는데도 나는 그곳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빨리 가보고 싶은 상념에 잠깁니다. ☹